

환경운동연합

전국서 35개 지역연합 활동 동강댐 백지화 투쟁 끝내 관철

93년 4월 2일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35개 지역조직에서 7만3천여명의 회원이 뿔뿔 뭉쳐 죽어가는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환경조사활동, 정책활동, 대외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환경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 아쉽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단체유지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작년 6월 5일 동강댐 백지화운동이 관철되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였다고...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이란 말 자체가 낯설던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환경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운동의 중추적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출범한 경과와 동기는?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진현, 이세중, 정학)은 1993년 4월 2일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과 자연의 편에서 환경문제를 해석하던 전국 각 지역 8개 단체가 연합하여 단일한 조직명칭과 동일한 목표 아래 통일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1차 년도에 4개 지역에서 새롭게 지역단체가 결성되었고 7차 년도인 현재는 2개 조직 준비위, 서울지역 1개 지부조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5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 7만3천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입니다.

80년대 공해추방운동 본격활동

환경운동연합의 역사는 1982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환

경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공해문제연구소는 1988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공추련은 한국의 환경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대중주의를 표방한 본격적인 환경운동단체였습니다. 공추련의 창립과 함께 전국 규모의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공해추방'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공추련은 이 시기에 다른 부문 운동과 연대하며 사회적인 공공 선의 실현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반공해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1980년대 후반을 지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세계환경운동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리우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의 환경운동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반공해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공추련은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와 통합하여 한국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 멀게는 7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현황은?

▶ 오늘날 환경문제의 급속한 악화와 더불어 더욱 주목을 받게되는 것이 시민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정부는 환경보전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는 구실이 있고 기업도 일차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율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환경운동단체의 도움입니다.

66년 부산화력 매연반대서 비롯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1966년 부산 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매연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70년대까지는 주로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활동이 전개됐습니다. 80년 초반의 반공해운동을 거쳐 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산업화에 따라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제기되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환경운동이 태동합니다. 현재는 환경보전협회 등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와, 배달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시·도에 사회단체 신고를 한 단체,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환경보전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 자연보호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단체 등 총 3백여개의 시민단체가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자연환경은 지난 30~40년 사이에 산업화를 겪으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자연환경(생태계)의 훼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나친 산업화를 통해 자연환경은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훼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과 물과 공기와 하늘이 오염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땅은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과잉방목, 과잉경작, 산림벌채, 관개시설 빈약 등으로 인해 토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2100년 쯤이면 1백40억의 인구가 되리라고 추산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농경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화학비료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은 크게 늘었으나 대신 땅과 농산물이 병약해지고 있으며 방사능 폐기물 매립, 유독쓰레기의 매립 등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폐수로 인해 물은 DDT,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물에 사는 어패류와 새들이 환경오염 물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들을 먹게 되고 잘



서울 대기오염심각성에 대한 시위

알려진 미나미야마병이나 이따이이따이병이 걸리게 됩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 섞여 나오는 중금속은 농작물의 생육에 장애를 주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매연으로 오염된 하늘과 산성비는 토양을 산성으로 만들어 작물재배를 힘들게 하고 산성화된 토양은 미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결국 생태계는 인간이 버린 환경오염 물질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부메랑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많은 활동들을 벌여 오셨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환경운동연합의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무엇인지요?

▶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환경조사활동, 정책활동, 대외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환경기획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조사활동은 갯벌과 철새보전, 대안에너지, 녹지보전, 강살리기, 반핵평화, 야생동식물 보호, 생명안전 등이 있습니다. 정책활동은 환경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안,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등 환경정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화문 차없는 거리’ 행사 주관

대외연대활동은 시민·사회운동의 공동과제는 연대사업

을 통해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인권, 여성, 문화, 정치, 경제분야 등 각종 사회단체와 활발한 연대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들과 연대, 총선연대를 결성하여 전개한 낙천·낙선운동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제연대활동에 있어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해 그린피스 본부(GreenPeace International), 지구의 벗 본부(FOE International), 월드워치연구소(WorldWatch Institute), 국제습지운동본부(Wetlands International), 독일 환경보호연합(BUND), 인도네시아 환경과 개발(WALHI), 네덜란드 보스엔즈(Both ends), 미국 시에라클럽(Sierra Club), 말레이시아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태국 테라(TERRA) 등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과 관련한 각종 문화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념일마다 열리는 환경음악회는 총 15회를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에 두번째로 열렸던 '광화문 차없는 거리' 행사는 환경연합 뿐 아니라 1백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 때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 우리꽃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 **그간 국민들의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성과도 거두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만.**

▶ 실무자들의 열의와 뜻있는 지역 시민의 헌신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 큰 것이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실무운동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앙에는 환경을 전문으로 공부했거나 환경운동에 뜻을 두고 오랫동안 준비한 활동가 지망생들이 적지 않은 편이나 지역에서는 이런 전문운동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피스와 삼척 핵발전소 주민대책위

재정 형편 또한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시민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환경 현안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자면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과 상근활동가를 가져야만 하는데 중앙의 시민단체들조차 대개 그러하듯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단체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의 사업비 지원과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경비 충당에 도움을 받지만 사업비 확보는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또 환경운동단체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시민환경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도 어려움입니다.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민 환경운동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고민입니다.

■ **그간의 활동 중 기억될 만한 활동으로는?**

▶ 동강댐 백지화운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00년 6월 5일 오전10시 20분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이던 세종문화회관은 떠나갈 듯한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동강댐 백지화를 기뻐하는 국민들의 환호성은 전국으로 메아리쳤습니다.

‘동강 살리자’ 2천5백여명 현장 농성

영월 동강이 지닌 천혜의 비경과 희귀 동식물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한 투쟁은 영월 주민으로부터 시작하

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동강을 죽이는 역사의 불행을 막자'며 각계 대표 33인이 33일 동안 밤샘을 하면서 '동강 살리기'는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2천5백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하였고 5천여만원의 '동강 살리기' 성금과 물품이 답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강 살리기' 운동은 환경단체,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로 확산되었고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 같은 국제환경단체들의 동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동강을 지키기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은 동강의 비경을 둘러보며 2000년 6월 5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백지화 활동도 주목할만 합니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운동은 지난 1997년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반입계약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연합은 활동가와 여·야 국회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대표단을 대만 현지에 급파해 항의시위를 벌였고, 대만의 핵폐기장인 란위섬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그린피스(GreenPeace)와 함께 대만 핵폐기물 이동 길목에서 해상시위를 벌이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50여개 사회·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까지 결성되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이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백지화, 가야산 해인 골프장 건설 백지화 활동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같은 결과들은 함께 해주신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환경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여전히 이질적
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환경운동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간단한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장바구니 사용하기, 내복입기, 일회용품의 사용 자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운동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그것이 바로 환경운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환경 선진국은 자전거 보급률도 높은 편입니다. 네덜란드

는 1백명중 80명, 독일의 경우는 75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백명중에서 15명만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 충분히 사용하고 잘 버리는 것이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만큼 수명이 다한 차량은 적절히 폐차처리 하는 것도 환경운동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다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여러분의 작은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여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1세기를 맞아 환경운동연합의 사업목표도 새로운
것이라 여겨지는데, 소개해주시죠.

▶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에서 환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21세기의 미래,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들어서는 '운동성과 현장성의 복원'을 기치로 세우고 93년 출범 이후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 중앙조직의 국장급 중간관리자를 전진 배치해 모든 실무 구조를 팀 체제의 현장활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각 팀에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분야별 현안사업을 보다 역동성 있게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3년 4월 창립 이래 '환경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운동의 현장을 누벼왔던 것처럼 21세기에 도 달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면으로 등장한 매항리 주민피해와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수입식품과 납땀과 파동으로 인한 식탁의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한 국민보건과 검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와 반달곰 생존확인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지리산 생태계 보전운동도 지역주민과 사회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활동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토개발에 대한 무원칙과 탁상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난개발을 조장하던 준농림지 폐지문제와 남북 화해 속에 위협받는 비무장지대 생태계보호운동 등 최대과제로 부상할 전망인 국토개발과 생태계보전운동에 노력하겠습니다. ⑤7

송해영 <본지 객원기자>